

젊은 선수들 성장 긍정적... 집중력 부족, 해결 과제

KIA 2023시범경기 성과-과제

5승 2무 6패... 공동 6위로 마감
임기영·윤영철 선발, 광도규 불펜
변우혁·김도영 등 내야 주전 경쟁
잇단 수비 실책... 집중력 보완을



“야수와 투수 모두 작년에 비해 전력이 굉장히 좋아졌다. 그러나 프로로서 본헤드 플레이

를 비롯해 아웃카운트 미스, 수비 위치 파악 실수는 절대 안된다.” 2023 KBO 시범경기를 통해 확인된 KIA타이거즈의 성과와 과제다.

KIA는 시범경기 초반 김도영과 윤영철, 중반에는 손 앤더슨과 변우혁, 김선빈, 소크라테스 브리토의 활약이 돋보였으나 후반 들어 선수단 전체적인 컨디션 난조와 실책 남발로 우려를 자아냈다.

지난해 시범경기 8승 2무 3패, 공동 1위에 올랐던 KIA는 올해 5승 2무 6패로 공동 6위에 머물렀다. 시범경기는 선수단 점점 차원인 만큼 성적에 큰 의미가 없긴



KIA 타이거즈 선수단이 지난 26일 광주-기아챔피언스필드에서 열린 NCD아이스와 의 2023 KBO리그 시범경기에 앞서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KIA 타이거즈 제공

하나 13개의 실책을 쏟아낸 수비 집중력 부족은 반드시 점검해야 한다.

우선 경기를 통한 젊은 선수들의 성장은 긍정적이다.

5선발에는 윤영철과 임기영, 1루수에는 변우혁과 황대인, 3루수에는 김도영과 류지혁이 격전을 치르며 시너지 효과를 냈다. 불펜 역시 광도규와 김유신, 박준표, 이준영, 최지민 등이 어필에 나서며 전력 향상을 기대하게 했다.

윤영철은 신인임에도 두각을 나타냈다. 16일 키움전과 21일 LG전에 선발 등판해 합계 8.2이닝을 소화하며 피안타와

볼넷 4개 씩 허용했지만 탈삼진 9개를 잡아내며 무실점 호투를 펼쳤다. 26일에는 퓨처스 NC전에 선발 등판해 5이닝을 소화하며 6피안타 2볼넷을 줬지만 1실점으로 선방했다.

변우혁 역시 성장세가 눈에 띈다. 13경기 36타수에 나서 홈런 1개 포함 안타 10개를 때렸다. 타율은 0.278로 돋보이지는 않지만 무난한 타격감에 안정적인 코너수비가 돋보인다.

3루수 주전을 노리는 김도영도 성장세를 보였다. 김선빈과 박찬호 키스톤 콤비가 확정적인 가운데 김도영은 12경기

나서 44타수 13안타(2홈런)와 도루 3개를 생산하며 호타준족으로 거듭날 준비 중이다.

불펜에서는 광도규와 박준표, 이준영, 최지민 등이 좋은 활약을 펼쳤다. 지난해 사실상 이준영 홀로 이끌었던 좌완 불펜에 광도규와 김기훈, 김대유, 김유신, 최지민이 가세하며 좌완 기군이 풍년으로 탈바꿈한 모양새다.

광도규는 5경기 4이닝에 나서 무실점 행진을 이어가며 개막 엔트리 진입에 청신호를 켜다.

특히 16타자를 상대로 피안타를 단 1개만 내주며 시범경기 철벽 불펜으로 자리잡았다.

박준표 역시 지난해 부진을 딛고 일어서 준비를 마쳤다. 5경기 3.1이닝 동안 14타자를 상대하며 피안타를 단 1개만 허용했다.

이준영은 6경기 5이닝을 소화하며 3피안타 1실점 평균자책점 1.80으로 호투했고, 최지민도 6경기 7.2이닝에 나서 9피안타 3실점(2자책점) 평균자책점 2.35로 무난한 투구를 이어갔다.

반면 클로저 정해영과 이적생 김대유의 시범경기 부진은 우려스럽다.

정해영은 6경기에 나서 5.2이닝 동안

26타자를 상대하며 피안타 7개와 볼넷 2개를 내주며 3실점했다. 28일 롯데전에서는 9회말 구원 등판해 끝내기 투런 홈런을 내주며 평균자책점이 4.76까지 치솟았다. 김대유도 6경기 5.1이닝에 나서 32타자에 피안타 12개, 볼넷 3개를 내주며 8실점(6자책점), 평균자책점 10.13으로 부진했다.

시범경기 마지막 드러난 집중력 부족도 KIA로서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다. KIA는 25-26일 NC전과 27-28일 롯데전에서 실책 7개에 주루사, 콜 플레이 미스, 보크 등 실수를 연발했다.

김종국 감독이 출사표에서 “선수들이 서로 미팅을 하면서 정신력과 집중력을 강화해야 한다”며 “일직선으로 빠르게 오는 공을 놓칠 수는 있지만 본헤드 플레이는 줄여야 한다. 특히 아웃카운트 미스나 수비 위치 파악 실수는 프로로서 나오면 안된다”고 강조한 것과 대조되는 모습이 었다.

한편 KIA타이거즈는 다음달 1일 SSG 랜더스와의 원정 경기로 ‘2023 신한은행 SOL KBO리그’의 막을 연다.

이에 앞서 김종국 감독과 김선빈, 김도영은 30일 개최되는 미디어데이에 참석해 올 시즌 각오를 전한다. **한규민 기자**

광주체고 선수단 “학교 명예 드높일 것”

전국체고대항 선수단 결단식
13개 종목... 총 202명 참가

제37회 문화체육관광부장관기 전국체육고등학교 체육대회에 출전하는 광주체육고 선수단이 선전을 다짐했다.

광주체고는 29일 학교 체육관에서 제37회 문화체육관광부장관기 전국체육고등학교 체육대회 광주체육고 선수단 결단식을 가졌다.

결단식에는 광주시교육청 동부지원청 정성숙 교육장, 광주시체육회 문종민 학교체육위원장, 광주체육고 육철수 교장을 비롯한 감독교사, 지도자, 선수 등 250여명이 참석했다. 이번 대회에 참가하는 광주체육고 선수단은 육상 등 13개 종목, 31개 종별에 임원 3명, 감독교사 11명, 운동부 지도자 23명, 선수 165명 등 총 202명이다.

광주체고는 31일부터 경북 경산시 일원에서 열리는 이번 대회에서 금메달 10

개, 은메달 7개, 동메달 24개 등 총 41개 메달 획득으로 종합순위 중위권 진입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번 대회는 31일부터 4월6일까지 사전경기로 수영, 근대4종, 복싱 종목이 진행되고 육상 등 10개 종목이 치러지는 본경기는 4월 6일부터 8일까지 열린다.

체조 문건영(2년)이 3관왕 이상을 노린다. 육상 100m 허들의 김찬송(3년)과 레슬링 자유형 -57kg 박인성(1년), 레슬링 자유형 -97kg 이재혁(1년), 태권도 라이트급 김가현(3년), 핀수영 모노핀 100m 양현지(3년), 핀수영 모노핀 400m 황윤형(3년), 양궁 조수혜 등이 금메달에 도전한다.

육철수 광주체육고 교장은 “그동안 갈고닦은 기량을 충분히 발휘해 지역 체육 발전은 물론 학교의 명예를 드높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최동한 기자



제37회 문화체육관광부장관기 전국체육고등학교 체육대회에 출전하는 광주체육고 선수단이 29일 학교 체육관에서 결단식을 갖고 선전을 다짐하고 있다. 광주체고 제공

황선홍호 U-22 대표팀, 도하컵 무실점·전승 ‘우승’

UAE와 순위 결정전서 3-0 승
엄지성 경기중 한때 의식 잃어

황선홍 감독이 이끄는 22세 이하(U-22) 올림픽 축구대표팀이 도하컵 친선대회에서 전승 우승을 달성했다.

올림픽 축구대표팀은 29일(한국시간) 카타르 도하 알두하일 스타디움에서 열린 아랍에미리트연합(UAE)와의 도하컵 U-22 친선대회 순위 결정전에서 안재준(부천FC)의 선제골과 홍시후(인천유나이티드)의 멀티골에 힘입어 3-0으로 완승했다.

한국은 이번 대회에서 오만(3-0 승)과 이라크(1-0 승)에 이어 UAE까지 무실점으로 꺾으며 무실점 전승으로 정상에 올랐다.

0-0으로 전반을 마친 한국은 후반전에 3골을 몰아쳤다. 후반 13분 안재준(부천FC)이 코너킥 상황에서 변준수(대전하나시티즌)의 헤딩 패스를 발리 슈팅으로 선제골을 넣었다.



황선홍 감독이 이끄는 올림픽대표팀은 29일(한국시간) 카타르 도하의 카타르클럽 스타디움에서 열린 2023 도하컵 U-22 친선대회에서 우승을 차지했다. 대한축구협회 제공

후반 34분에는 추가골에 성공했다. 홍시후(인천유나이티드)가 역습 상황에서 고영준의 패스를 받아 발재간으로 수비수를 제친 뒤 오른발 슛으로 골망을 흔들었다.

후반 41분 홍시후가 썩기골을 박았다. 안재준이 문전에서 홍시후에게 패스를 했고 홍시후가 골키퍼까지 제친 뒤 골을 넣었다.

한편 이날 경기에서는 엄지성(광주FC)이 머리를 다쳐 의식을 잃는 사고가 발생했다. 전반 43분 공중에서 공을 다투던 엄지성이 상대 선수와 머리끼리 충돌한 뒤 바닥에 떨어졌다.

엄지성은 의식을 잃고 쓰러졌고 들것에 실려 그라운드 밖으로 나갔다. 엄지성은 다행히 의식을 회복했지만 뇌진탕의 의심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최동한 기자**

광주시청 김태호, 익산실업육상 100m 금빛레이스

광주시청 김태호(30·사진)가 올시즌 첫 대회인 2023 Amazing 익산 KTFL 전국실업육상경기대회 남자 100m에서 금빛 레이스를 펼쳤다. 광주시청 이적 후 첫 금메달이다.



에서 결승을 뛰지 않았다. 여자 100m 1위는 11초95를 기록한 김다은(가평군청)이 차지했다.

김태호는 29일 전북 익산종합운동장에서 열린 이번 대회 남자 100m 결승에서 10초49로 결승라인을 통과, 1위를 차지했다.

2위는 10초58의 이규형(국군체육부대), 3위는 10초63의 비웨사다니엘가사마(안산시청)가 차지했다.

‘100m한국기록보유자’ 광주시청 김국영은 예선을 10초39로 통과했으나 결승에서 파울로 실격됐다.

여자 100m에 나선 강다슬(31)은 12초31로 예선을 통과했으나 부상 예방 차원

심재용 광주시청 감독은 “김국영이 파울을 잘 하지 않는데 지난해 전국체전에 이어 두차례 연속 실격돼 걱정이다. 대신 김태호가 1위를 하면서 광주시청 이적 신고식을 치렀다”며 “강다슬은 지난해 다친 부위가 아직 완전히 낫지 않은 상태. 부상 예방 차원에서 결승은 나서지 않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대회를 마무리한 광주시청 선수들은 오는 5월 5-9일 예전에서 열리는 제51회 KBS배 전국육상경기대회에 나설 예정이다. **최동한 기자**